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낙후된 광주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춰
광주를 첨단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광(光)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입안에서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광주시 그리고
광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관계자들의
한국광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에 대해 치하하고
더욱 분발하여 국내 광산업이
2010년까지는 광선진국으로
세계5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본인도 국내 광산업발전과 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흔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재/윤희진 기자

광(光)산업 육성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 …

광주지역에 21세기 미래첨단산업인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건의, 정책사업으로 확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걸로 아는데 그때의 보람을 표현하신다면

“비록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광주지역을 발판으로 광산업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21세기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앞을 미리 내다본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999년부터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 그해 9월 광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침을 확정하도록 하였고 지난해 5월에는 민간추진주체로서 광산업육성과 광산업체의 지원에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정부에서 한국광산업진흥회를 설립, 출범 시켰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동안 광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산업자원부와 광주시, 학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광산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점은

“광주 광산업추진 공동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광주에 광산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으로서 깊은 감회와 보람을 느낍니다. 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당시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광주의 취약한 지역경제와 산업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자못 염려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산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재원의 조달이라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11월 광산업의 산실이 될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집적화단지 기공에 맞춰 정부차원의 「광주 광산업 종합발전 계획안」이 수립됨으로써 광산업이 광주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 산업위원장 차원에서 광산업 육성의 지원책은

“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유발 효과도 크지만 고도의 첨단기술 집약적인 산업인 관계로 육성초기에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나 취약한 지역경제 힘만으로는 그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산자부 외에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유기적 지원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광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이지만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공해가 거의 없고 부가가치가 높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고도의 정밀 첨단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광산업의 성패는 곧 기술경쟁력에 달려 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광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 대학 및 연구소, 기업이 3위 일체가 돼 협력체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기관이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은 그 바탕위에서 첨단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이 기술을 기업들에게 이전하는 식의 산·학·연·관 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하므로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산업은 이제 광주지역 특화산업이면서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광산업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해 자동차 및 기계산업, 무공해 에너지 등의 환경산업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와 관련된 원천 핵심기술산업인 만큼 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존에 확립된 기반기술을 발판으로 광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도 광산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무안지역에 대규모 광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광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지식혁명시대에 광산업은 국가의 핵심산업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육성과 발전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광산업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광산업은 21세기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미래의 핵심기반 산업입니다. 노동력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 그리고 광주시가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성장하는데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예산투입이 제때 이뤄져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계에서 광산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저 또한 광산업의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러 광기술 테크노마트에 참석해 광산업의 중요성을 역설.



▲ 광산업 집적화단지 기공식